

# 德壽宮 卽祚堂 窓戶의 복원적 고찰

張順鏞

(삼성 건축사사무소 소장)

## 1. 서론

조선왕조 궁궐의 현황과 일제시대의 개변에 대해서는 익히 소개되어 왔기에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에 남아 있는 건물들도 외관은 변함이 없으며 내부는 대부분 제거되거나 변형되어 있고,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몇 개의 건물만이 제모습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궁궐건축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의문점이 많이 남아 있고 창호의 사용기법도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창덕궁, 창경궁 경복궁에도 건물이 많지만 이리저리 이진되거나 개진되기도 하여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

창호의 종류와 배치방법 등의 건축적인 상황을 고찰하려면 왕조 말기의 건축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소급해서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전제로 가장 적당한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궁궐의 중건도감의례로는 최후에 작성된 경운궁중건도감의례(1906년, 규장각본)가 있음으로 여기에 수록된 건물과 현재 남아 있는 건물에서의 비교로 원래의 모습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었다.

선정된 건물로는 즉조당 외에도 석어당, 준명

당, 함령전이 있으나 석어당과 함령전은 규모도 크거니와 제대로 실측된 도면이 없어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준명당은 평면이 ㄱ자형이라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결과적으로 일자형 평면인 즉조당을 선택하게 되었다. 1970년도에 보수공사를 위해 작성된 즉조당의 도면을 입수하고 보니 미비한 점이 많아 건물을 약실측하고, 특히 창호와 관련된 부분에 유의하여 조사한 후 도면을 작성하였다.

본론에서는 즉조당의 창호를 의례와 대조하여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제거된 창호의 종류와 설치위치를 알아보는 정도의 초기작업에 불과함을 밝혀두는 바이며, 특히 함령전과 석어당을 검토하면 더 많은 사항이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나아가서는 건축부재를 의례와 비교함으로써 조선말기의 건축기술에 관한 정보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건물에 대한 실측도면의 작성이 선행되어야 하는 애로사항이 예상된다.

## 2. 즉조당의 연혁

임진왜란(1592)시에 의주에서 환도하여 임시로 행궁으로 사용되면서부터 경운궁, 즉 덕수궁의

역사는 시작된다. 정전으로는 즉조당을, 정침으로는 석어당을 사용하였다. 1623년에 인조가 등극하고는 창덕궁으로 옮기면서 즉조당과 석어당을 남기고 기타는 철거하거나 원주인에게 돌려준다.

즉조의 뜻은 즉위와 같이 왕위에 오른다는 의미므로 인조반정의 당위성을 선포하기 위해 전각의 명칭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을미사변(1895)으로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시해되자 이듬해에 고종과 황태자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고 경운궁의 중건을 하명하고는 1897년 2월에 경운궁으로 이어하여 궁궐로 사용된다.

1904. 4. 14(음 2. 29)에는 함령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함령전 중화전 즉조당 석어당 등의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된다. 화재 후 중신들의 문후시에 고종이 슬회하는 중에 즉조당은 수백 년된 건물로 서까래 하나도 변동되지 않은 건물이 소실된 것을 슬퍼했다는 내용이 고종실록에 기록되고 있다. 화재가 난 이튿날에 중건도감이 설치되고 가장 먼저 공사가 착수되는 건물이 즉조당과 석어당이다. 4. 27(음 3. 12)에 정초하고 5. 1(음 3. 16)에 입주하고 5. 14(음 3. 29)에 두 건물의 상량식이 거행된다. 화재 후 한달만에 즉조당과 석어당의 상량식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 두 건물에 대한 고종의 애착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고종실록에 의하면 즉조당과 석어당은 예전의 규모를 변경치 않고 원래의 건물터에 그대로 중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당시에 중건된 건물로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즉조당과 석어당 외에도 준명당 함령전과 중화문, 중화전이 있다.

### 3. 경운궁중건도감의궤(慶運宮重建都監儀軌)

광무 8년(1904) 4. 14(음 2. 29)의 함령전 화재로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되자 이튿날로 중건도감이 설치되고 1906. 4. 24에 대한문과 조원문의 현판설치로 중건공사가 끝나는 내용을 기록한 의궤로서 서울대학교 규장각본을 참조하였다. 의궤에 기록된 주요건물로는 중화전, 즉조당, 석어당, 함령전, 준명당, 흙문각, 경효전, 영복당,

함유재, 함희당, 양이재, 중화문이 있다.

의궤에 사용된 건축용어 중에는 순조대에 작성된 의궤의 용어와는 차이점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용어의 변천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시대별로 사용된 용어의 비교점토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즉조당의 구조 및 규모

정면 7칸(16.905m), 측면 2칸반(6.155m), 각기둥에 굴도리를 사용한 2고주 5량구조의 겹처마 팔작지붕이며, 익공의 형태는 초익공 계통의 물익공(物翼工)으로 31.47평 규모의 남향건물이다. 정면에는 전체적으로 반칸 툇마루를 두고 서측에서부터 마루방을 한칸, 온돌방 2칸, 대청 3칸, 온돌방 한칸으로 잡아 대청이 건물의 중앙에 위치되지는 않았으나, 즉조당 서편에 있는 준명당의 정면 6칸을 전면의 퇴칸부에서 두 칸의 복도로 연결하여, 두 건물을 전적으로 볼 때는 완전치는 않지만 좌우가 대칭되도록 구성하고 있다.

전면의 기단은 5자폭으로 장대석 3별대로 구성하고 그 앞으로 3자폭의 하부기단이 돌출되었으며 대청앞 3칸에 계단을 3개소에 설치하였다. 후면과 동측면에는 3자 반폭의 가퇴를 구성하고 대청 칸의 북편에는 아자간간을 설치하였다.

건물의 주칸에서 살펴본 영조척은 308mm정도로 판단되고, 한칸의 척도기준은 8자로 잡고 있으나 서편 마루방의 전면폭은 7자로 하였고, 전후면의 주칸도 최소 2.435m에서 2.480m 범위로 분포하고 있어 ±1치 정도의 시공 오차를 보여주고 있다.

### 5. 즉조당 창호의 검토

의궤에 기록된 창호의 순서대로 기술하였으며 창호의 명칭을 이두식으로 읽을 필요가 있어 한글과 한문을 병기하였고, 명칭 옆의 수량은 의궤에 기록된 창호의 수량이다.

#### ① 세살청판분합(細箭廳板分閤) 16짝

문짝의 하부는 청판, 즉 궁창관이 끼워지고 그 상부는 세살문으로 된 분합문을 말한다. 세살문

은 흔히 띠살문으로 불리는 것으로 한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창호이며 의례에서는 세살로 표현하고 있다. 세살청판분합문이 설치된 위치는 대청의 전면 고주열 3칸과 서측 마루방 전면 1칸에 각각 4짝씩 16짝이 있고, 서측면 복도로 통하는 곳에 2짝이 있어 현황은 모두 18짝이 있으나 의례에서는 16짝으로 기록하였다.

#### ② 완자지청판분합(完子紙廳板分閤) 12짝

문살의 구성은 완자문양이고, 하부에는 청판대신에 수직과 수평살을 사용하고 양면을 약간 두꺼운 황색의 한지로 도배하여 紙廳板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대청의 후면 고주열 3칸에 설치하였고 수량은 12짝으로 현황과 일치한다. 대청 전면부의 세살청판분합과 대비되어 후면벽을 전면보다 격조 높게 장식하려는 배려로 해석된다.

#### ③ 만살청판분합(滿箭廳板分閤) 10짝

창살의 구성이 격자살 또는 정자살로 된 것을 만살이라 표현하고, 그 하부로는 청판이 끼워진 분합문이다. 전면퇴칸 부분의 3 개소에 6짝과 동측과 북측면의 가퇴 4개소에 4짝이 있어 수량은 현황과 일치한다.

#### ④ 세살단분합(細箭短分閤) 48짝

세살청판분합에서 청판부분이 제거되어 문의 높이가 낮은 것을 세살단분합이라 하였다. 뒷마루 또는 마루방에서 머슴대 위에 설치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황은 30짝으로 의례의 수량인 48짝과 큰 차이가 있다. 나머지 18짝은 지금은 철거되어 없어진 즉조당과 석어당을 연결하는 복도 3칸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 ⑤ 만살단분합(滿箭短分閤) 36짝

만살청판분합에서 청판이 없는 문으로 세살단분합과 같은 표현방법이다. 온돌방의 전후면 퇴칸 또는 가퇴부분에 설치되어 온돌방의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량은 현황과 일치한다.

#### ⑥ 완자교창(完子交窓) 3짝

완자살로 구성된 교창을 의미하며 대청후면 고주열 3칸에 완자지청판분합 상부에 설치되어 있다. 완자지청판분합의 문살은 수직과 수평으로 구성되나 교창에서는 빗살의 완자형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기둥사이의 한칸에 교창이 두구

획으로 구분되어 설치되었으나 상하의 울거미가 한부재로 구성되어 있어 두구획이 교창 1짝으로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량도 현황과 일치한다.

#### ⑦ 빗살교창(斜箭交窓) 5짝

교창의 종류에서 흔히 교창으로 표현되는 빗살 격자창을 말한다. 현황은 대청 전면의 세살청판분합 상부에 3짝이 설치되어 의례의 수량과는 차이가 있다.

#### ⑧ 직교창(直交窓) 10짝

교창의 살이 수평과 수직으로 구성된 격자교창을 말하며 전면과 후면의 퇴칸에 6짝이 설치되어 의례에 수량과는 차이가 있다.

#### ⑨ 연창(連窓) 16짝

한국건축사전에서는 연창에 대해서 “① 가로 연속하여 있는 창틀에 단 창, ② 대청과 방사이에 연속되고 접어 열수 있는 덧문”이라 하였고, 국어사전에서는 “문쪽의 중간부분만 살창으로 한四分閤”이라 하였다. 따라서 즉조당에서 문의 형태는 불발기문이고 설치위치는 대청과 방사이에 있고 접어 열 수 있는 문에 해당하는 것은 대청의 동측면과 서측면의 방앞에 설치된 창호임이 분명하다. 또한 건축부재를 기록한 내용 중에는 연창인방이 4개로 그중에 2개는 12자 길이이고, 2개는 4자 길이이므로 연창이 12자칸과 4자칸에 설치되는 것과 창호의 수량도 일치한다.

연창의 개폐방법은 12자칸에 6짝이 설치되어 남쪽에서 부터 2번과 3번 그리고 6번을 여닫도록 되어 있다. 정상적인 출입은 2번과 3번의 문으로 출입하고 6번의 문은 보조적인 출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1번과 4번 5번의 연창문에는 상부에 삼배목을 2개씩 설치하여 대청에 달린 달쇠에 횡목을 꽂아 들어 열 수 있도록 하였다.

북편 퇴칸에 설치된 연창문은 출입기능을 위하여 두 짝의 여닫이문으로 설치되고 삼배목은 없어 들어올리지는 않도록 하였으며, 대청의 연창보다는 폭이 좁으나 모양새는 같다. 문의 형태는 높이를 3등분하여 울거미를 연귀맞춤하고 중앙부에만 격자살을 구성하여 방안쪽에서 창호지를 바르고, 나머지는 황색의 한지로 안팎을 모두 싸 바

르고 있어 대청쪽 중앙부의 울거미와 살만이 목재면을 노출하고 있다.

순조대의 의궤에서는 연창(連窓)은 기록된 것이 없으며 연창장지(煙窓障子), 연창문열골장지(煙窓門於骨障子), 연독창(煙獨窓) 등의 종류가 있다. 의궤가 작성된 시기로는 70여 년의 차이가 있지만 궁궐건물에서의 창호의 용도와 기능이 크게 변화된 것은 없다고 본다면 순조대에 연창장지로 기록하던 것이 고종대에 와서는 연창이라 표기하였을 것으로 추리하여 볼 수 있다. 건축부재에서 蛇羅가 沙乃로, 甫兒只가 甫兒支로, 純角반자가 崇角반자로, 長散耳가 長散里로 변화되는 등등의 예에서 시대에 따라 용어의 차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창장지와 연창은 문의 개폐방법이 다른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며, 수량면에서도 연창장지가 많고, 순조대의 의궤에서는 맹장지도 보이지 않고 있는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다. 혹시 연창과 맹장지가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연창장지로 일괄하여 수량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와같은 문제는 본론의 주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의문점을 제기하여 보는 것이고, 앞으로의 연구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⑩ 쌍창(雙窓) 16짝

두 짝의 문이 여닫이로 설치된 창문을 쌍창이라 하였고 창문의 형태는 세살단분합과 같으나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수량도 현황과 일치한다. 온돌방 주위의 외벽에는 모두 머름을 설치하고 머름대위로 쌍창이 설치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⑪ 맹장지(盲障子) 12짝

문짝의 안팎으로 도배를 한 미서기문을 맹장지라 한 것 같으며, 현황에서는 서편 마루방과 온돌방의 퇴칸사이에 문이 양쪽에서 개폐되도록 4짝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으나 이것은 여닫이문으로 미서기가 아니므로 맹장지와는 다른 창호로 판단된다. 맹장지가 설치될 곳은 방과 방을 구획하는 부분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보면 동편방의 8자칸 1개소와 서편방의 8자칸 2개소와 12자칸 1개소가 있다. 그런데 12자칸에는 상하인방

에 3줄의 홈이 파여 있어 6짝의 미서기가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곳에는 후술되는 장완자 추장지가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8자칸 3개소에 4짝씩 12짝의 문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황에서 하인방이 제거되고 없으나 상인방에는 4줄의 홈이 파여 있어 문한틀에 8짝의 창호가 겹으로 설치되었던 것임을 추리할 수 있다.

⑫ 상횡장지(上橫障子) 8짝

문자대로 해석하면 상부에 가로로 설치되는 장지를 의미하는데 실내에 고창이 있을 만한 곳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기능이 아닌 창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상횡장지가 설치될 수 있는 곳으로는 8개소에 설치된 쌍창의 상부를 생각할 수 있다. 현황에서는 쌍창의 내부로 덧흙대와 동일한 표면으로 벽체를 구성하고 있어 쌍창의 상부에 설치된 부분이 상횡장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웃한 건물인 준명당의 경우에는 쌍창이 13개소에 26짝인데, 상하횡장지 27짝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상횡장지 13짝과 하횡장지 13짝, 그리고 마루방으로 통하는 곳에 하횡장지 1짝이 있어 모두 27짝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즉조당에서는 상횡장지 8짝이라하고 하횡장지는 표현이 없으므로 하횡장지의 기록이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여닫는 기능을 갖지 않는 것을 장지라고 표현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로는 창호의 목록에 반자 16짝이라 하였고, 기타의 다른 건물에서도 반자는 창호목록에 기록하고 있다. 기능은 완전한 창호가 아니지만 제작방법은 창호와 동일하므로 창호조에서 반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횡장지는 실내측에 쌍창의 상부로 설치하여 실내의 벽에 요철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배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⑬ 완자개폐장지(完子開閉障子) 2짝

현황에 실물은 남아 있지 않으나 2짝 여닫이문이 설치될 수 있는 곳은 서편 온돌방의 북측 퇴칸부분이다. 여기에도 현재는 하인방이 없어 장판으로 도배되고 있으나 상인방과 양쪽의 문선이 남아 있고, 서측에서 동편으로 열리도록 문선과 상인방에 턱이 있고 돌쩌귀도 남아 있다. 창호의

구성은 다음에 설명되는 장완자추장지와 같은 형태로 짐작되며 다만 문의 개폐방법이 여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⑭ 장완자추장지(長完子推障子) 18짝

건축부재의 목록에서는 추장지 인방과 가지방(加支防)이 각각 4개로, 3개는 8자 길이이고 1개는 12자 길이며, 벽선 8개의 높이는 6자 3치로 동일하므로 방사이에 있는 8자칸 3개소와 12자칸 1개소에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2자칸에 6짝과, 4자칸 3개소에 4짝씩 12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12자칸에는 문홈이 3줄이 있어 장완자추장지 6짝만 설치되었을 것이고, 12자칸에는 문홈이 4줄로 있어 한칸에 장완자추장지 4짝과, 앞서 설명한 맹장지 4짝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맹장지와 추장지의 설치위치의 선후관계와, 12자칸의 추장지 설치방향의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은 온돌방에서 최상석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편의 온돌방 2칸 중에서는 퇴칸의 문이 동측으로 열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서측의 온돌방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12자칸에 설치되는 장완자추장지는 창살이 동편으로 향하도록 설치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동편의 온돌방에서는 북측의 방이 주실이 되어 남쪽방보다 격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달리 생각하면 낮에는 남측방이 중심이 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는 다른 건물의 예를 비교검토함으로써 밝혀질 문제로 보인다.

서편방에서는 북측의 퇴칸은 서비스 공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요실의 기능은 아니다. 그리고 남쪽의 쌍창에서 실내측으로 영창과 흑창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방의 북편에는 장완자추장지가 퇴칸쪽에 설치되고 그 내측으로 맹장지가 설치되어 낮에는 맹장지가 좌우로 열려 감창역할을 하다가 밤에는 흑창처럼 변환되는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이 문제도 앞으로 더욱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편방에서 특이한 점은 장지문을 설치하기 위

하여 연창쪽으로는 문선을 세운 것이다. 이와같은 구성은 준명당의 서편방에서도 볼 수 있으며, 기둥이 없어도 창틀을 설치하는 특수한 기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창살의 구성은 완자형으로 대청에 설치된 완자지청판분합의 완자모양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며, 문의 하부까지 완자살로 구성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나 실례를 확인해 보아야 될 것이다.

⑮ 분합영창(分閤暎窓) 12짝

분합문 내측에 설치된 영창을 의미하며 현황에서 분합문이 설치된 곳에 영창이 설치될 곳으로는 대청전면의 3칸이 있다. 이곳은 현재 영창은 없으나 분합문 인방 내측으로 덧흙대가 상하로 설치되어 두 줄의 문홈이 파여 있고 문선에는 통으로 홈이 파여 있다. 창살의 구성은 쌍영창과 유사한 것으로 추측된다.

⑯ 분합횡영창(分閤橫暎窓) 12짝

의례에서는 「分閤暎窓橫暎窓各十兩隻」이라 하여 분합영창과 분합횡영창이 상호 관련되는 위치에 설치되는 것을 암시하여 주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분합영창 상부에 고창형태로 횡영창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리할 수 있다. 그런데 현황에서는 횡영창 하인방이 없으나 그런 부재가 설치되었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와같은 양상은 준명당의 대청전면부에서도 동일한 모습이다. 횡영창이 영창상부에 설치되었음을 입증하여 주는 자료로는 1897년경에 고종황제와 대신들이 준명당 앞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다. 사진에서는 대청 동측칸 앞에 분합영창 밖으로 발을 드리우고 고종이 정좌하고 있으며, 바른편에는 쌍영창이 보이고 왼편으로는 대청의 분합영창과 그 상부로 횡영창이 분합문 상인방 밑으로 절반쯤 보이고 있다. 현황에서도 횡영창 하인방의 흔적이 분합문 상인방보다 아래쪽에 남아 있어 사진의 모습과 부합되며, 횡영창의 상인방은 분합문 상인방에 고정되어 있어 분합영창은 분합문보다 높이가 낮았던 것을 알 수 있다.

⑰ 연영창(連暎窓) 16짝

대청에 설치된 연창의 내측으로 설치된 영창을 말하며 현재는 연영창은 남아있지 않으나 의례의

수량은 연창과 같이 16짝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황에서는 연창 내측에 덧흙대가 있어 두 줄의 흙이 파여 있다. 서편의 퇴칸부 연창문 내측으로는 연영창의 하인방이 제거되고 없으나, 문선과 상인방은 남아 있어 영창이 설치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⑱ 단분합영창(短分閤暎窓) 84짝

단분합 내측에 설치되는 영창을 의미하며, 의궤에 기록된 세살단분합 48짝과 만살단분합 36짝을 합하면 84짝이 된다. 현황에서는 단분합영창은 남아 있지 않으나 영창의 덧흙대가 남아 있는 부분으로 산정하면 64짝이 필요하고 나머지 20짝은 철거된 복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⑲ 쌍영창(雙暎窓) 16짝

의궤에서는 쌍창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쌍창은 앞에서 기록되었고 영창을 열거하는 중에 표현된 것이므로 쌍영창의 영자가 누락된 것이 확실하며, 다른 건물에서는 쌍영창으로 바르게 표기되어 있다. 쌍창의 내측에 설치된 영창을 말하며 수량도 현황과 일치한다. 살의 구성은 용자창(用子窓)으로 수직살 1개와 수평살 2개로 구성되었다.

⑳ 흑창(黑窓) 16짝

쌍영창 내측에 설치된 문으로 살의 구성은 쌍영창과 같으나 쌍영창은 창호지를 내측에만 바른 데 비해, 흑창에는 누런색의 한지로 안팎을 싸발랐다. 수량도 현황과 일치한다.

㉑ 갑창(甲窓) 16짝

의궤에서는 쌍영창 흑창 갑창 각 16짝으로 표현하고 있어 모두가 쌍창과 연관되는 창호임을 암시하여 주고 있으며, 갑창은 쌍영창과 흑창의 좌우로 고정되어 설치되는 창을 말한다. 살의 구성은 쌍영창 흑창 갑창이 동일하게 용자창(用子窓) 구성으로 만들고 있다.

㉒ 선자귀(檀作耳)

한국건축사전에서는 “선자귀(先佐耳) : 반칸퇴에서 두짝달이로 열게 된 분합문. 대개 나비가 좁고 높이가 높은 문이됨. 전하여 퇴칸에 다는 분합문을 이르기도 함”이라 하였다.

의궤에서는 선자귀 자체는 표현이 없으나 선자귀가 설치될 부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

였다.

檀作耳引防四箇 各長四尺 廣六寸 厚三寸  
 中防二箇 各長四尺 廣一尺 厚三寸  
 加支防四箇 各長四尺 廣三寸 厚三寸  
 壁檀八箇 各長六尺四寸 廣四寸 厚三寸

이를 살펴보면 벽선이 8개이므로 선자귀가 설치될 곳은 4개소가 될 것이고, 폭 4자에 높이 6자 4치의 문꼴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인방은 선자귀의 상인방을 의미하고 가지방은 하인방이 되며, 중방은 바닥이나 천정에 높이 차가 있는 곳에 설치되는 인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호목록에서는 선자귀에 해당하는 창호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건물의 현황에서 반칸퇴에 설치되는 창호는 일반창호의 수량계산과 합치되고 있으나, 서편 마루방의 복측퇴에서 온돌방으로 통하는 곳에 있는 창호만이 창호목록에 포함되지 않고 남아 있다. 이곳은 방바닥보다 1자정도 높게 마루가 구성되고 맹장지 형태의 상하인방과 문선과 여닫이문이 2중으로 설치되어 4짝이 설치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모습은 준명당의 마루방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문의 개폐는 4짝이 모두 온돌방쪽에서 처리되도록 문고리가 부착되어 있으며 온돌방쪽의 하부로는 하횡장지가 설치되어 있다.

㉓ 반자(班子) 11짝

가퇴(假退)에 설치된 반자로 추정되며 폭이 3자반에 길이가 8자인 가퇴 한칸에 반자가 두 짝씩 설치된 것으로 계산하면 11짝이 된다.

현황에서 가퇴의 천정은 수평으로, 내부는 도배되고 외부는 동판으로 덮여 있어 반자가 8자길 이로 2짝이 설치되는지 4자길 이로 설치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온돌방의 반자에 해당하는 것은 건축부재 목록중에 별도로 “班子十間”이라 기록하고 있으며 온돌방의 면적은 8자 사방의 6칸이므로 면적상으로는 칸수에 차이가 있으나 길이 8자에 폭이 4자짜리 6칸과, 폭이 6자짜리 4칸으로 생각하면 10칸이 된다.

의궤에 기록된 즉조당 창호의 수량은 반자를 제외하면 384짝이고, 철거된 부분과 현황과 차이가 나는 수량을 현황에 맞춘 총소요량은 351짝이

며, 현재 남아 있는 창호는 291짝이다. 따라서 현황의 상태에서 추가되어야 할 창호는 132짝이 되므로 전체의 38% 정도가 제거되어 있고, 이는 주로 내부의 창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조당은 정면 7칸에 측면 2칸 반으로 면적상으로는 17칸반 건물에 창호가 351짝이 소요되므로, 평균적으로 8자각 한칸방에 20짝의 창호가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일반의 주택에 비해 궁궐에서는 건물의 벽전체가 2중 3중의 창호로 구성되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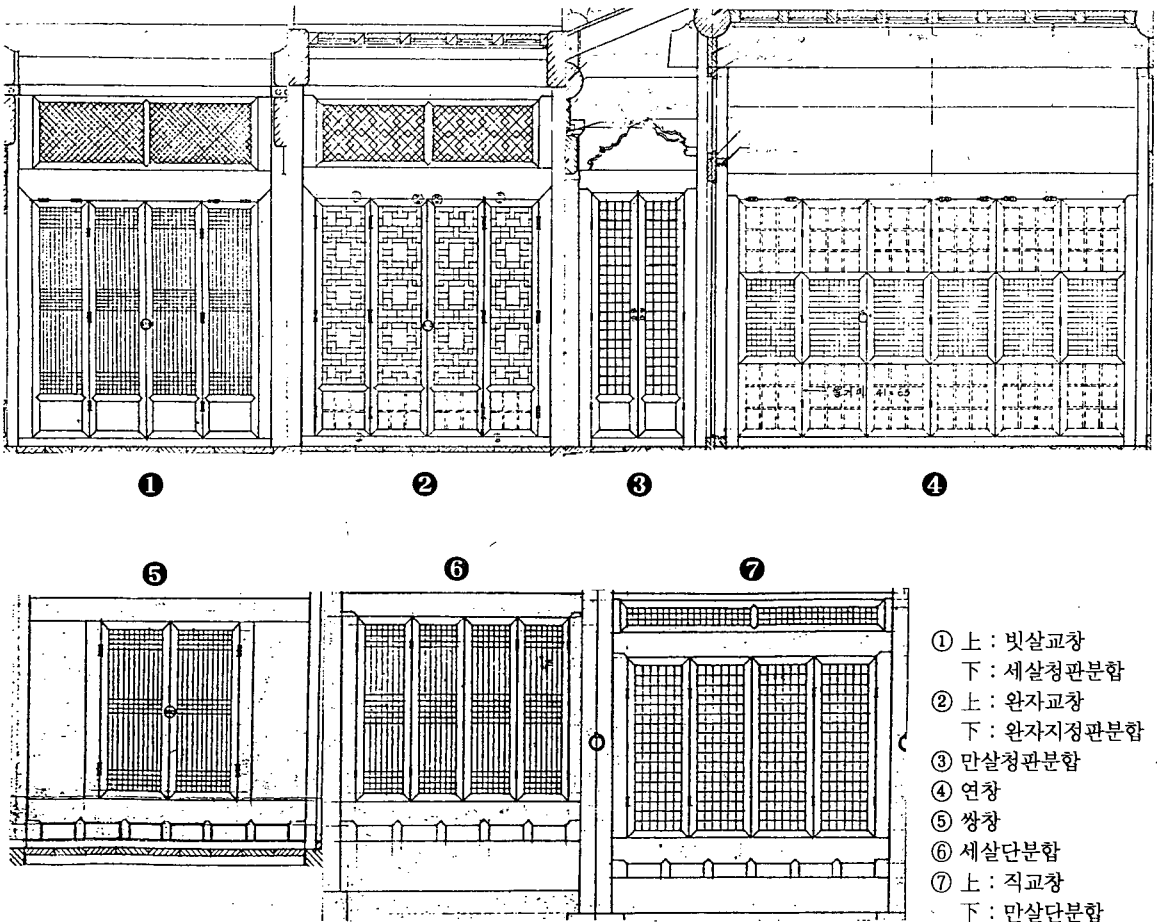
6. 기타 전각의 창호

① 청판분합(廳板分閤) : 행각과 부속건물에 사

용되었으며 문올거미에 널을 끼워넣은 문으로 생각되나 후술되는 우리판문과의 차이점은 검토되어야 하겠다.

② 포도이층 청판분합(葡萄二層廳板分閤) : 중화전 출입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하부에 청판이 상하 두구획으로 설치되어 이층청판이 되고 살대의 모양도 전형적인 꽃살문이 아니고 포도잎의 오목한 곡선이 연속된 형태의 문살이므로 「포도이층청판분합」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꽃살문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의궤에서 구분하여 사용된 용어이므로 이런 형태의 창호를 호칭하는 단어로 활용되어도 좋겠다.

③ 포도단분합(葡萄短分閤) : 역시 중화전에 사용된 것으로 살대는 포도잎 형상이고 하부에 청판



- ① 上 : 빗살교창  
下 : 세살청판분합
- ② 上 : 완자교창  
下 : 완자지정판분합
- ③ 만살청판분합
- ④ 연창
- ⑤ 쌍창
- ⑥ 세살단분합
- ⑦ 上 : 직교창  
下 : 만살단분합

창호의 형태

이 없으므로 포도단분합이라 하였다.

④ 수장광창(修粧廣窓) : 행각과 부속건물에 사용되었으며 지금의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사용된 방형의 격자살창과 유사한 것으로 벽에 고정된 창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장광창(長廣窓) : 행각에 소량이 사용되었으며 벽면에 길게 설치된 광창인 것으로 판단되나 살의 구성에 대해서는 고증을 필요로 한다.

⑥ 팔모광창(八隅廣窓) : 중화전 행각에 16짝이 사용되었으므로 중화문 좌우의 월랑 16칸에 설치된 것이고, 경복궁 근정문 좌우월랑에서 볼 수 있듯이 울거미는 팔각형이고 살은 교살형태의 광창이었을 것이다. 덕수궁의 옛사진에서 중화문 좌우월랑의 광창이 팔모형인 것은 확인되지만 살의 구성형태는 확인할 수 없었다.

⑦ 소쌍창(小雙窓) : 행각과 부속건물에 사용되었으며 규모가 작은 쌍창을 말한다. 창살의 구성은 쌍창과 같은 형태일 것으로 보인다.

⑧ 배밀이 쌍창(排 밀里雙窓) : 경효전 내재실과 석어당 행각에 사용된 것으로, 쌍창에서의 살의 가공 형상이 배밀이를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일반적인 쌍창의 살은 전면부만 가공한 등밀이 살임에 비해서 살의 양측면에도 배밀이를 하여 모양을 낸 것으로, 흔히 말하는 투밀이살의 형태인 것으로 추측된다.

⑨ 음양쌍창(陰陽雙窓) : 석어당에만 유일하게 12짝이 사용되었으며 쌍창의 한 종류인 것으로 보이나 그 형상은 고증이 필요하다.

⑩ 소음양창(小陰陽窓) : 지금은 철거된 석어당 행각에만 유일하게 4짝이 사용되었고 규모가 작은 음양창이라는 의미이므로 음양쌍창의 구성과 같은 형상일 것이다.

⑪ 독창(獨窓) : 중화전 행각에 2짝이 사용되었고, 광창이 벽에 고정된 창임에 비해서 개폐가 되는 외쪽의 창을 독창이라 한 것으로 보인다. 살의 구성은 세살, 만살 또는 교살이 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⑫ 우장지(隅障子) : 석어당 행각과 경효전 어재실에 4짝이 사용되었고 실내의 모퉁이에 설치된 장지라는 의미인지, 장지의 살대 구성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지 애매하다. 현재는 존재하지 아

니하는 건물에 사용되었으며 다른 건물에서의 예를 찾아서 기능과 용도가 밝혀져야 하겠다.

⑬ 지벽장지(紙壁障子) : 함령전에 8짝이 사용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이 건물을 검토해 봐야 하겠다. 글자의 뜻으로 해석하자면 문의 기능이 아니라 벽체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장지문형태로 만들어 벽에 설치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함령전에는 연창상지벽장지(連窓上紙壁障子) 8짝이 있어 연창상부의 벽체에 사용된 것임을 표현하고 있어 창호의 기능이 아닌 벽체의 기능임을 알 수 있다.

⑭ 가장지(假障子) : 경효전 내재실과 석어당 행각에 사용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설치와 제거가 가능한 임시적인 장지라는 의미로 해석되나 고증이 필요하다.

⑮ 전벽 지벽장지(全壁紙壁障子) : 경효전에 40짝이 사용되었으며, 앞에서 언급한 지벽장지와 같은 종류로 생각되나 장지전체를 일괄적으로 도배하여 벽체처럼 꾸민 것으로 짐작되지만 고증이 필요하다.

⑯ 맹미서기(盲味釋耳) : 준명당 행각에 4짝, 내반원에 4짝, 함유재에 8짝이 사용되었으며, 맹장지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고증이 필요하다.

⑰ 유리창(琉璃窓) : 석어당에 13짝, 흥문각에 8짝이 사용되었고, 창문의 일부에 유리를 대어 밖을 내다볼 수 있도록 만든 창인지, 전체를 유리로 끼운 창인지는 고증이 필요하다.

⑱ 월문살창청판문(月門箭窓廳板門) : 흥문각에 8짝이 사용되었고, 문이 설치되는 개구부의 형태가 홍예 또는 원형으로 만들어진 곳에 문짝의 상부는 살창으로 만들고 하부는 청판을 댄 문으로 추측되나 고증이 필요하다.

⑲ 월문우리판문(月門于里板門) : 함유재에 8짝이 사용되었고, 개구부의 형태는 홍예 또는 원형인 곳에 문의 울거미를 짜고 그 안에 청판을 댄 문으로 추측된다.

⑳ 우리판문(于里板門) : 문짝의 울거미를 좋은 나무로 짜고 가운데를 널판지로 막은 문짝으로 행각과 부속건물에 주로 사용되었다.

㉑ 양판문(祥板門), 서양판문(西洋板門) : 궁내



주기) 소요량은 건물의 현황에서 필요한 수량을 의미한다.

창 호 종 류		수 량			비 고
		의뢰	소요량	현황	
분 합	1. 세살청판 분합	16	18	18	2짝은 선자귀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18짝은 철거된 복도각의 것
	2. 완자지청판분합	12	12	12	
	3. 만살청판 분합	10	10	10	
	4. 세살단 분합	48	30	30	
	5. 만살단 분합	36	36	36	
교 창	6. 완 자 교 창	3	3	3	2짝은 위치 미상 4짝은 위치 미상
	7. 빗 살 교 창	5	3	3	
	8. 직 교 창	10	6	6	
창	9. 연 창	16	16	16	
	10. 쌍 창	16	16	16	
장 지	11. 맹장지	12	12	0	창호의 기능이 아님 의뢰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
	12. 상횡장지	8	8	8	
	12'. 하횡장지	0	9	9	
	13. 완자개폐장지	2	2	0	
	14. 장완자추장지	18	18	0	
영 창	15. 분합영창	12	12	0	20짝은 복도각에
	16. 분합횡영창	12	12	0	
	17. 연영창	16	16	0	
	18. 단분합영창	84	64	0	
	19. 쌍영창	16	16	16	
기 타	20. 흑 창	16	16	16	의뢰에서 누락된 것으로 추정
	21. 갑 창	16	16	16	
	22. 선자귀	0	4	4	
계		384	355	219	

표1 즉조당 창호의 종류 및 수량

부에 25짝이 사용되었고 석어당과 함령전에 각각 2짝이 사용되었으며 서양식 판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석어당에 있는 양판문은 1층에 2짝이 있으며, 우리판문에서는 청판이 평면이나 양판문의 청판은 중앙부가 도드라지게 구성하였다.

㉔ 양제문(洋製門) : 양판문과는 별도로 양제문 4짝이 흙문각에 사용되었는데 어떤 형태의 문인지는 고증이 필요하다.

### 7. 창호지 및 도배지

의궤에 기록된 창호지 또는 도배지의 종류는 모두 20종류가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 도배지의 대체적인 용도는 짐작이 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질과 규격인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궁궐에 있는 건물에서도 도배는 근대에 이루어진 것이 많기에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앞으로 도배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에서는 의궤에 수록된 도배지의 종류를 언급하는 수준으로 소개할 수밖에 없다.

① 초주지(草注紙) : 중화전에만 초주지 4권이 사용되었다. 한 권은 한지 20장 한 묶음이라 하므로 80장이 사용된 것이다. 한국건축사전에서는 초주지를 “닥풀로 뜯 종이”라 하였다. 중화전의 창호지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의 창호지와는 달리 섬유질을 보강하여 만든 종이로 짐작된다.

② 장지(壯紙) : 한국건축사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두껍고 질기며 크게 뜯 종이. 저장지(楮壯紙) 대, 중, 소 장지가 있음”이라 하였고, 즉조당에는 42권 7장이 사용되었다. 벽지나 장지 문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③ 청능화지(靑菱花紙) : 중화전에 7장, 경효전에 5장이 사용되었으며, 마름모의 무늬가 청색으로 인쇄된 고급의 종이인 것으로 짐작된다.

④ 삼첩지(三貼紙) : 한국건축사전에서는 이첩지보다 두꺼운 백지를 삼첩지라 하였고, 이첩지는 두 겹으로 된 두꺼운 장지의 일종으로 기름 먹여 장판지로 쓰인다고 하였다. 의궤에서는 이첩지는 없고 삼첩지는 건물전체에 고르게 사용되었

다.

⑤ 백지(白紙) : 닥나무껍질로 만든 빛깔이 흰 종이를 백지라 하였으므로 창호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중화전에서는 초주지를 사용하였으므로 백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⑥ 후백지(厚白紙) : 두꺼운 백지를 의미하며, 건물에서 백지의 10~16%의 수량이 소요된 것으로 보아 창호에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⑦ 연창지(煙窓紙) : 순조대의 의궤에서는 연창(煙窓)이라는 창호의 종류가 보이나, 본 의궤에서는 연창은 없고 연창지는 기록되고 있다. 수량은 후백지의 12~18% 정도로 사용되었다.

⑧ 용봉지(龍鳳紙) : 즉조당에 215장이 사용되는 등으로 주요 전각에만 사용되었으나 중화전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용과 봉이 인쇄된 고급의 도배지로 추측되지만 고증이 요망된다.

⑨ 고정지(稿精紙) : 의궤에 기록된 고정지는 글쓰기에 사용되는 맑은 종이로 사전에 설명되어 있고, 음은 같으나 한문이 다른 고정지(藁精紙)는 함경북도에서 나는 귀리짚으로 만든 황지(黃紙)로 우리나라의 명산품으로 설명되어 있어 의궤에서 한문표기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수량도 연창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창호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⑩ 경대각(京大角) : 주요전각에 사용되어 장판지의 일종으로 규격이 큰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⑪ 소외각(小外角) : 삼축당(三祝堂)에서만 47장이 사용되어 외각의 규격보다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⑫ 외각(外角) : 경대각 다음으로 주요 전각에 사용되었으며 이역시 장판지의 종류로 추측된다.

⑬ 면각(綿角) : 행각과 부속건물에 주로 사용하였으며 대각과 외각보다 질이 떨어지는 장판지로 추측된다.

⑭ 냉금전지(冷金箋紙) : 금전지는 금종이로 세 모나게 만들어 보자기 4귀에 다는 장식품으로 사전에 설명되고 있으나, 냉금전지는 색깔이 은색인 것을 지칭하는 것 같으나 용도가 불확실하다. 삼축당과 태의원에서는 짝수로 사용되었으나 다

른 전각에서는 4의 배수로 사용되고 있어 금전지와 같이 4귀에 사용된 것 같기도 하다.

⑩ 마분지(馬糞紙) : 짚으로 만들어 빛이 누렇고 품질이 낮은 종이를 마분지라 하므로 초배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수량은 측단위이므로 한 측은 10권, 즉 200장의 수량이 된다.

⑪ 반자지(班子紙) : 천정의 도배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필(疋) 단위로 사용되었다.

⑫ 별반자지(別班子紙) : 반자지의 일종으로 삼 측당에서만 10필이 사용되었다.

⑬ 소호지(小好紙) : 대호지(大好紙)보다 품질이 낮은 조선종이의 일종으로 사전에 설명되고 있으며, 의궤에서는 대호지는 보이지 않고, 행각과 부속건물에 사용되었다.

⑭ 저주지(楮注紙) :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라 설명되고 있으며, 행각과 부속건물의 일부에 사용되었다.

⑮ 유둔(油屯) : 국어사전에서는 비올 때 쓰기 위하여 이어 붙인 두꺼운 유지라 하였고, 행각과 부속건물에서 장판지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 8. 측조당 창호의 설치방법

단일건물의 창호만을 검토하고 설치방법을 거론하기에는 무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다른 건물과의 비교로 더욱 상세한 내용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체적인 경향의 분석을 하여 보았다.

① 온돌방의 외측벽에는 하부에 머름을 두고 머름대 위로 세살문의 쌍창을 설치하고, 쌍창 내측으로는 영창과 흑창 그리고 그 좌우로 갑창을 설치하여 주간과 야간 그리고 계절에 따라 적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방의 주변에는 퇴가 없는 곳에는 가퇴를 설치하였고, 가퇴 위에는 머름을 두고 그 상부로 만살단분합과 영창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가퇴의 단부에는 만살청관분합문을 두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퇴가 있는 부분도 창호의 설치는 가퇴와 같으나 벽체의 높이가 있으므로 고창을 설치하되 직교창을 두어 만살분합과 어울리도록 하였다. 다만 가퇴의 출입문은 1짝이고, 전퇴의 출

입문은 2짝으로 하여 기능의 차이에 따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궁실에서 실의 보안기능과 보호기능을 고려한 독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③ 대청과 방사이에는 불발기 형태의 연창을 미단이 분합문 형태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대청 쪽으로 들어올릴 수 있도록 달쇠를 설치하였다.

④ 대개의 경우에 창문에는 영창을 설치하여 2 겹으로 구성하고 있다.

⑤ 온돌방에서는 창문의 상하로 횡장지를 설치하여 벽체에 요철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실내전체가 창호지 또는 도배지로 바르고 있어 목재면이 노출되는 곳은 극히 제한적이다.

⑥ 대청도 완전한 실의 기능으로 만들기 위해 분합문과 고창 그리고 영창을 설치하고 있으며, 특히 대청 후벽의 창호는 완자창 또는 완자고창을 두어 전면보다 치장을 높이고 있다.

⑦ 온돌방에서는 기둥이 있는 곳에는 칸막이가 되어 장지문을 설치하여 실의 기능과 서비스의 통로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연창의 안쪽으로 기둥이 없는 곳에도 장지문의 문선을 설치하여 칸막이 구성을 하고 있는 점은 궁실건축에서의 독특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⑧ 측조당에서와 같이 별도의 벽장이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도 궁중생활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는 모든 가구와 집기가 궁중에서 일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과, 어느면에서는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는 독특한 생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 9. 창호의 상세

벽체의 수장폭은 75mm이고, 의궤에서는 인방과 벽선의 두께를 3치로 기록하고 있으므로 3치짜리를 치목하여 2치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분합문 울거미의 두께는 36mm로 수장폭의 절반에 가까우며 문턱의 높이는 13mm로 울거미 두께의 1/3 정도가 된다.

쌍창의 내측에 설치된 영창의 덧흙대는 폭 95mm에 두께 50mm이고 영창의 문선은 두께가 58mm

이다. 영창과 흑창의 울거미는 폭 45mm에 두께는 15mm로 분합문 두께의 절반 정도가 되며 갑창은 두께 18mm이고, 특히 영창과 흑창에는 별도로 두께 5mm 정도의 풍소란대를 끼워 기밀하게 닫히도록 배 하였다.

쌍창 벽선 내측으로는 폭 25mm, 두께 22mm의 각재를 대어 쌍창과 영창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있다. 결과적으로 영창과 흑창사이의 간격은 10~12mm 정도가 되어 손가락이 들어가는 정도로서 문을 여닫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간격을 만들고 있으며 특히 흑창과 갑창과의 간격은 3mm 정도로 줄여서 외풍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창문의 상하 인방과 벽선과 덧흙대에도 고르게 부재폭에 따라 쌍사와 모접기를 구사하였다.

연창은 높이 193cm, 폭 54cm에 울거미는 42×63mm이다. 쌍창은 개구부 높이 136cm에 폭 106cm이고 머름의 높이를 포함하면 172cm 정도이므로 사람의 신장과 비슷하고, 문을 열어젖히면 기둥옆에서 1cm 내외의 여유가 있도록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대청의 세살청판분합은 높이 206cm이고 고창은 높이 60cm 정도이다. 대체로 창문의 높이는 청판분합과 단분합의 2종류로 대별되나 서측의 마루방은 마루가 1차 정도 높게 구성되면서 청판분합문만은 높이가 약간 낮게 설정되었고, 문의 폭은 개구부의 폭에 따라 변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치수차이는 문선에서 조정하여 규격을 단순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청의 천정고는 343cm이나 온돌방의 천정고는 218cm 정도로 낮게 잡고 있다.

## 10. 맺는말

경운궁중건도감의뢰의 기록과 즉조당의 현황과를 비교하여 창호의 종류와 설치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하여 봄으로써 창호설치의 개념적인 구성은 알 수 있었다. 중화전이 건립되기 전에는 즉조당이 정전으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조선조 말기에는 편전으로 사용된 건물이면서 다른 궁궐의 건물보다는 내부의 창호가 제거되었을 뿐으로 크

게 개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의뢰와의 비교가 용이한 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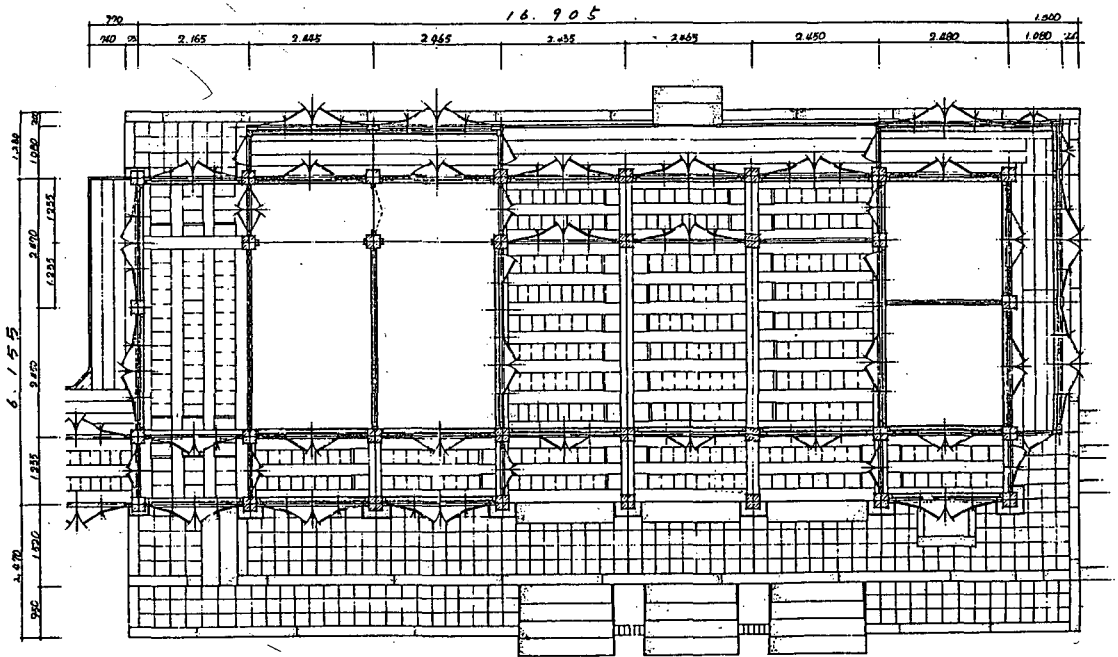
궁궐에서의 창호설치 방법은 점차 다른 건물에서도 확인해 보아야 종합적인 체계가 알려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궁궐도와 의뢰에서 그려진 건물의 그림을 참고하여 보면 몇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로 편전과 같은 주요 전각에서는 온돌방을 중심으로 하여 그 외곽에 전퇴 또는 가퇴나 마루방을 둠으로써 이곳을 통하여 서비스와 보안이 제공되고 추위와 더위를 완충시키는 공간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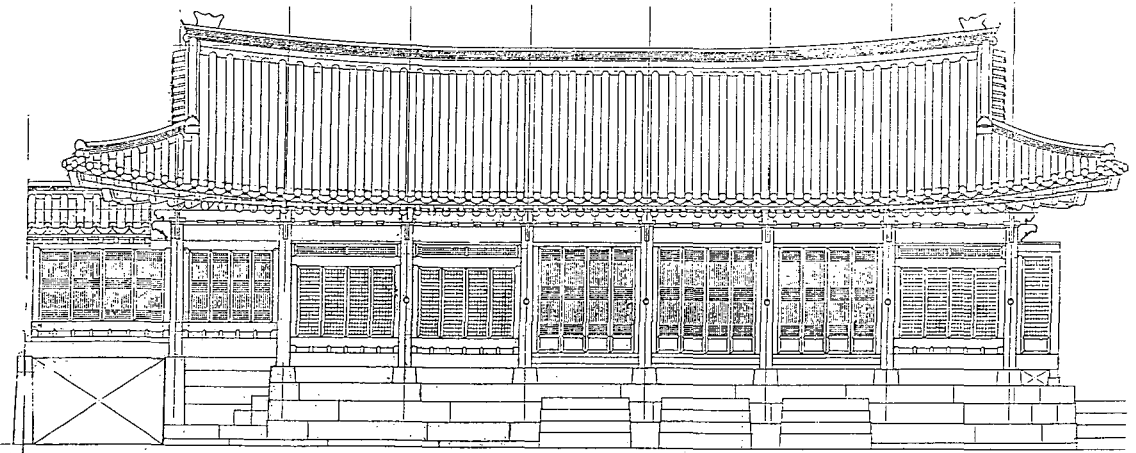
둘째로 중심되는 실내에서는 벽체의 구성을 창호위주로 하면서 2중으로 창호를 설치하여 주위 환경에 따라 쾌적한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고정된 벽체는 방에서 주인이 정좌하는 상석에 국한되어 있다.

셋째로 건물의 외부벽체는 전체적으로 청판분합 또는 단분합으로 구성하여 회벽은 쌍창 좌우로만 있는 정도로서 일반의 주택과는 다른 궁실 건축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이 2중 3중으로 창호를 구성하고 실제의 생활에서는 발, 휘장, 병풍 등을 구사하여 창호가 제공하지 못하는 부대적인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을 것이다.

넷째로 현재는 영창이 남아 있지 않아 분합문 영창의 손잡이 구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지만, 쌍창의 경우를 보면 외측의 창호는 창호철물을 사용하여 고정시키지만 쌍영창과 흑창 갑창에는 철물이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쌍영창의 손잡이로는 양가죽 같은 부드러운 가죽을 사용하여 갑창속의 좁은 틈사이로 문짝을 밀어넣고 빼기에 적합하도록 하였고, 흑창에는 그나마 손잡이도 만들지 않고 있어 실내에서는 냉기가 서리는 철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였다. 결국 실내에는 대부분이 도배지 또는 창호지로 마감되고 문설주 등의 제한적인 부분에만 목재면이 노출되고 있다. 이것은 인체의 온도 감각에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배려인 것으로 판단된다.



죽조당 평면도



죽조당 정면도



# The Restorational Study of Windows and Doors of Chukcho-Dang in Duksu Palace

Chang, Soon Yong

## ABSTRACT

The Palaces of Chosen dynasty in Seoul had lost its original features. The external appearance of the buildings that remains in palace nowadays, have got former conditions, but its interiors are reconstructed or removed. So we have a little knowledge of interiors of palace buildings, especially of the door and window system. To clear up ambiguity of what kinds of door are selected, and sorts of using methods are prevailed, we must pursue from the latest building to the older building, and compare with documents. For that purpose the Chukchodang of Toksu palace is selected, which reconstructed in 1904, and compared with the document published in 1906.

The consequence of investigation is that the palace buildings were adopted double or triple window system, and the main room have buffer zones, such as corridors or small rooms. And the main rooms were facing with wall paper, so metal fittings are hidden and wooden surfaces are hardly expose for the purpose of amenity.